

## 광주송정역 주변 56만㎡ 투자선도지구 지정

구도심 개발·자동차산업 연구·지원 융복합 단지 조성  
역주변 교통체계 개선 등 서남권 광역교통 허브 조성  
소상인·청년창업 지원시설·1913송정시장 상생 도모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16일 “송정역 주변 56만427㎡(17만평)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는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중앙 부처

협의를 주민 공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5년여 만에 지난해말 중앙토지위 심의에서 지구 지정 동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으로 2015년부터 전국 총 17곳을 선정했다. 현재 9개 지구가 지구지정 절차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원활한 사업과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되고 국비 재정 지원(50억 원 한도)과 세제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등 73가지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는 고속철도 역사와 관련해 지정된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다.  
호남권 중심역인 광주송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KTX 등 광역 고속교통망을 통해 시간적으로는 준수도권에 비견되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산업·업무·주거 등의 융복합지구로 조성해 향후 광주송정역 일대를 호남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일원 등 56만여㎡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5943억원을 투자해 호남발전을 이끌어가는 기록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1구역은 KTX역 일대의 종합적인 교통과 환승 체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임계역 보행통로 연결, 택시 환화차로 설치 등 역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을 통해 국토 서남권 광역교통 허브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또 송정역과 연계해 1913송정시장 상생 발전을 위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시설, 공공안심상가 조성 등 올드앤뉴스퀘어 조성을 통해 호남권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정역 후면 2구역은 빛그린국가산단과 연결하는 자동차산업 연구지원시설과 주거, 상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플랫폼 조성 등 자동차산업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전지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등 KTX역을 거점으로 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2년 토지보상, 20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송정역 주변 투자선도지구는 KTX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국내 첫 사례라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송정역 일대를 국토 서남권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연구·상업·업무·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마약범죄 증가폭 전국 최고...2016~2020년 117% ↑  
전남 211건→280건 늘어(33%)

광주지역 마약범죄 증가폭이 전국 최고를 기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운(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5년동안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38% 이상 증가했다.

2016년 8853건에서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비교할 경우 광주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증가폭이 가장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지난 2016년 141건에서 지난해 306건을 기록해 117% 증가했다.

인접 도시인 전남은 같은 기간 211건에서 280건 늘어 33% 증가했으며, 전북은 99건에서 178건을 기록해 80% 늘었다.

서울은 1990건에서 2629건(32%), 부산 793건에서 1276건(31%), 대구 383건에서 431건(12%), 인천 780건에서 1041건(33%), 대전 137건에서 185건(35%), 세종 0건에서 19건(190%), 경기 1999건에서 3246건(62%), 충북 299건에서 337건(13%), 경북 378건에서 491건(30%), 경남 653건에서 697건(1%), 제주 50건에서 96건(92%)이다.

강원과 충남은 각각 339건에서 326건(-3.8%), 458건에서 408건(-11%)으로 감소했다.

강기운 의원은 “과거 유류업소 등에서만 성행하던 마약은 현재는 사이버상으로 옮겨가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은 마약의 흐름을 파악해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시원한 물줄기와 파란 하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진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문희루 분수대에서 시원하게 분수가 나오고 있다.

## “복합질환 노인 전문 치료” 전남대병원 노년내과 개설

병원 1동 2층 13번 진료실...매주 수·금요일 운영

전남대학교병원이 노인병을 전문 진료하는 ‘노년내과’를 개설하고 본격 치료에 나섰다.  
전남대병원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병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노년내과

진료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년내과는 병원 1동 2층 13번 진료실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씩 시행된다.  
진료 대상은 기력 저하·식욕 부진·기능 저하 등 다양하고 모호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를 비롯해 복합적인 질환으로 통합 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진료과의 협진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전문 노년내과 진료로 인해 복합처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1차 진료를 통해 적절한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약물과 검사에 대한 중복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령 환자를 직접 치료하면서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임상 연구, 타 진료과의 연계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노년내과 개설을 통해 노인환자들의 진료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온라인 **슬기로운 집콕생활!**

#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왕인ONTACT**

-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
-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 집콕놀이! 왕인키트
- 집콕! 챌린지
-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기찬영암ONTACT**

- 유튜버와 떠나는 3인 3색 랜선 영암여행
- 기찬영암 브이로그
-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 혜택 가득! 기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 온라인 영암 마켓
-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 온택트 개막콘서트
-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 온택트 폐막행사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군항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문의전화 | 061-470-2347